

한어 어음변천과 현대 한국 漢字音(韻母) 반영 탐색*

- 현대 중국 普通話 [-i]·[-ɿ]·[-ʌ]·[ə]음을 대상으로 -

李 春 永**

<目 次>

I. 들어가는 글	2. 宋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II. 漢語 어음변천의 시대적 특징과 한국 한자음 반영	3. 元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1. 五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III. 나오는 글

I. 들어가는 글

한자권 국가의 한자음은 한자 유입시기와 국가간 교류 상황 및 자국의 언어 환경을 배경으로 고유의 반영특징을 가진다. 현대 한국 한자음 또한 고유의 한자음 반영내용과 특징을 가지며, 반영내용에는 중국 漢語¹⁾ 어음변천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현대 방언음과 더불어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어 어음변천 및 고음을 추측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로서 성운학 분야에서 중시되고 있다.

普通話 [-i]²)·[-ɿ]·[-ʌ]·[ə]의 어원이 되는 《切韻指南》 止攝·蟹攝의

* 이 연구는 201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부교수

1) 본 논문의 漢語는 현대 중국 普通話의 기원이 되는 언어를 뜻한다.

2) 본 논문의 어음표기는 국제음성기호와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를 근거로 하며, []로 표시한다.

開口三等 및 開口四等 글자, 梗攝·曾攝·臻攝·深攝 入聲의 대부분 開口三等字와 開口四等字는 한어 어음변천사에서 합병 및 분화의 구분현상이 뚜렷하다. 이 글자들의 현대 한국 한자음 반영내용에는 한어 어음변천의 시대적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한어 어음변천 내용과 한국 한자음을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면 한국 한자음 고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어어음변천사와 중국방언을 근거로 현대 한국 한자음에 나타난 유사성을 파악하고, 그 속에 나타난 차이점을 분석하여 현대 한국 한자음 音值의 특징과 유래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예외 현상을 나타내는 각 글자의 어음분석을 통해 한국 한자음의 유래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대 한국 한자음의 역사적 위치와 특징 및 중국 漢語 어음사의 근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漢語 어음변천의 시대적 특징과 한국 한자음 반영

普通話 [-i]音의 어원은 기본적으로 《廣韻》 ‘齊韻 平上去 開口字, ‘祭韻 開口字(‘知系³⁾·‘照系 제외), ‘微韻 平上去의 開口字, ‘支·‘脂·‘之 세韻 平上去의 開口字(‘精系·‘知系·‘照系·日母字 제외), 錫韻 開口字, 陌韻 開口3等字, ‘昔·‘職·‘質·‘緝 네韻 開口字(‘知系·‘照系字 제외)와 ‘昔韻 일부 合口字, ‘迄韻 開口字이다. 또한 [-i]音의 어원은 《廣韻》 ‘支·‘脂·‘之 세韻 平上去의 ‘精系字이며, [-ɨ]音의 어원은 《廣韻》 ‘支·‘脂·‘之의 平上去 및 ‘祭·‘昔·‘質韻의 ‘知系·‘照系字와 ‘緝·‘職韻 ‘知系·‘照組字⁴⁾다. [a]音은 ‘支·‘之 두韻 平上去의 日母 開口字가 변한 음이다.⁵⁾

이 외에도 아래 글자들이 普通話에서 [-i]·[a]음으로 변천하였다.

- 3) 본 논문 [-i]·[-ɨ]·[-ɯ]·[a]의 기원이 되는 ‘知系에는 娘母자를 제외한다.
- 4) 본고의 ‘照組字는 ‘照三等字를 가리킨다.
- 5) 王力, 《漢語史稿》 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 161-165쪽.

- ‘脂’韻 去聲 合口三等 見母 季

《廣韻》‘至’韻 合口三等 대부분 글자가 普通話에서 [-uəi]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至’韻 見母 季는 [-i]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季는 《韻鏡》‘內轉第七合’의 3等 위치에 있어,⁶⁾ 唐宋시기에 合口三等으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元代 《中原音韻》에 이르러 ‘齊微’韻에 포함되며, 《廣韻》‘志’韻 開口三等 見母 記, 群母 忌, ‘霽’韻 見母 計繫繼髻, ‘末’韻 見母 既 등과 같이 나열되어 있어,⁷⁾ 당시 운모가 이미 [-i]음으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중국 溫州방언과 建甌방언에는 季의 발음에 撮口呼 [-y]운모가 여전히 남아있고,⁸⁾ 한국 한자음에서는 일부 ‘至’韻 合口三等字 및 齊韻 平上去, 그리고 ‘祭’韻·‘廢’韻字의 반영음인 ‘키’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 ‘廢’韻 開口三等 疑母 ㄷㄹㅏㅓㅕ

‘廢’韻 疑母 ㄷㄹㅏㅓㅕ는 普通話에서 [-i]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ㄷㄹㅏㅓㅕ는 《韻鏡》‘內轉第九開’의 3等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⁹⁾ 王力은 ‘廢’韻 開口三等 글자의 宋代 어음을 [-iɛi]로 擬音하고 있다.¹⁰⁾ ㄷㄹㅏㅓㅕ는 元代 《中原音韻》에서 ‘齊微’韻에 속하며, 普通話에서 [-i]음으로 발음되는 《廣韻》‘志’韻 開口三等 喻母 異와 影母 意, ‘祭’韻 開口三等 喻母 齋勤曳와 疑母 藝, ‘寘’韻 開口三等 疑母 義議誼와 喻母 易, ‘末’韻 開口三等 毅, ‘霽’韻 開口四等 影母 翳瞽와 疑母 詣, ‘至’韻 開口三等 影母 饋懿와 疑母 劑와 같이 나열되어 있어,¹¹⁾ 당시에 이미 [-i]음으로 발음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6) 《韻鏡》, 《等韻五種》, 臺北, 藝文印書館, 1998, 30쪽.

7)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 臺北, 學海出版社, 2001, 36쪽.

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2版, 北京, 語文出版社, 2003, 89쪽.

9) 《韻鏡》, 앞의 책, 34쪽.

10) 王力, 앞의 책, 244쪽.

11) 陳新雄, 앞의 책, 35쪽.

• ‘脂’韻 去聲 開口三等 日母 二貳貳

‘脂’韻 開口三等 日母 二貳貳 등은 普通話에서 ‘支’·‘脂’ 두 韻 平上去日母 글자와 함께 [ə]음으로 발음된다. 元代 《中原音韻》에서는 普通話에서 [-i]·[-ɿ]·[-ʌ]·[ə]음으로 발음되는 ‘支思’韻에 함께 나열되어 있어,¹²⁾ ‘支’·‘脂’ 두 韻 日母자와 같은 어음변천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들은 한국 한자음에서는 [ə]음 이전의 어음 [-i]운모의 유사음인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i]·[-ɿ]·[-ʌ]·[ə]음은 모두 기본적으로 開口細音의 변천음이다. 南宋 《切韻指掌圖》에서 止攝 開口字 茲雌慈思詞/恣載自筭寺 등의 글자가 一等에 배열되어 있어, 宋代에 이미 洪音 [-ɿ]가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¹³⁾ 또한 普通話 [-ɿ]·[-ʌ]음 글자와 [ə]음 글자만 따로 배열하고 있는 元代 《中原音韻》의 ‘支思’韻¹⁴⁾이 당시 [-ɿ]음과 [-ʌ]음의 발생을 나타낸다. 普通話 [-ɿ]·[-ʌ]음 글자와 [ə]음 글자들이 중국 방언에서 [-i]음으로 나타나고, 또한 한국 한자음에서 ‘ㅣ’음으로 반영하고 있어, [-ɿ]·[-ʌ]·[ə]음 변천 전 단계를 [-i]음으로 擬音하는 근거가 된다.

普通話 [-i]·[-ɿ]·[-ʌ]·[ə]음 글자들의 舒聲은 隋唐시기에 [-i]음으로 변천한다. 그 이전의 南北朝 어음에 대해서 王力은 介音[i] 뒤에 舌面前展唇半高元音의 [e]·[ei], 央元音의 [ə]·[əi], 舌面前次低元音의 [æ]음의 형태로 擬音한다. 특히 入聲字의 어음변천을 [-iət](南北朝 이전)→[-iət](五代)→[-it](宋)→[-i](元), [-iəp](五代 이전)→[-ip](宋)→[-i](元), [-iət](東漢 이전)→[-iək](南北朝~五代)→[-it](宋)→[-i](元)으로 분석한다.¹⁵⁾ [-i]음으로 변천한 글자들의 이전 元音이 [-i]와 발음부위가 근접하고 있어 타당한 擬音 유추이다. 어음변천에 있어 [-i]음과 발음 위치가 근접한 어음의 互變과 함께 介音의 영향력 또한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陳新雄, 앞의 책, 31쪽.

13) 藝文印書館, 《等韻五種·切韻指掌圖》, 臺北, 藝文印書館, 1998, 77쪽.

14) 周德清 輯, 《中原音韻》, 臺北, 藝文印書館, 2001, 30-31쪽.

15) 王力, 앞의 책,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 참고.

王力이 擬音한 漢語 [-i]·[-ɿ]·[-ʌ]·[ə]음 어음변천표¹⁶⁾를 《廣韻》 41 聲類를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支’·‘脂’·‘之’ 세 韻 平上去의 開口三等字는 隋唐시기 이전에 완전히 합병되었다.
2. ‘微’韻 平上去 開口三等字는 五代시기에 ‘支’·‘脂’·‘之’ 세 韻 平上去 開口字에 합병되었다.
3. ‘齊’韻 平上去 開口四等字와 ‘祭’韻 平上去 開口三等字는 隋唐 이전에 완전히 합병되었다가, 宋代에 이르면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 開口字에 합류된다.
4. ‘錫’韻 開口字와 ‘昔’韻 開口字 및 일부 合口字는 先秦시기부터 일부 글자들이 이미 합병되기 시작하였으며, 南北朝시기에 이르면 ‘陌’韻 開口三等字도 여기에 합병된다. 五代에 이르면 ‘陌’·‘錫’·‘昔’韻 開口三等字는 職韻 開口三等字에 완전히 합병된다.
5. ‘質’韻과 ‘迄’韻은 五代에 합병된다.
6. ‘錫’·‘昔’·‘陌’·‘職’·‘質’·‘迄’ 여섯 韻의 開口字와 ‘昔’韻 일부 合口字는 宋代에 ‘ㄷ’운미로 합병되며, 元代에 이르면 入聲韻尾가 완전히 사라지고 ‘緝’韻과 더불어 ‘支’·‘脂’·‘之’·‘微’·‘齊’韻 平上去 開口字와 ‘祭’韻 開口字에 합병된다.
7. [-ɿ]음은 元代 이전에 생성되었다.
8. [-ʌ]음은 明清 이전에 생성되었다.

위에서 정리한 普通話 [-i]·[-ɿ]·[-ʌ]·[ə]음의 중국 각 시대별 한어어음 변천 내용을 현대 한국 한자음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五代·宋代·元代 어음현상과 유사한 흔적이 파악되었다.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 같은 책, 497-523쪽, 「歷代語音發展總表」에 근거한다.

1. 五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현대 한국 한자음 현상과 유사한 중국 어음변천 중 五代의 어음변천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陌’·‘昔’·‘錫’·‘職’ 네 韻 開口字의合併이며, 둘째, ‘微’ 韻 平上去 開口三等字가 ‘支’·‘脂’·‘之’ 세 韻 平上去 開口字에 합병된 것이다. 셋째는 ‘質’·‘迄’ 두 韻 開口三等字가 합병된 것이다. 이 세 현상과 현대 한국 한자음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陌’·‘昔’·‘錫’·‘職’ 네 韻 開口字의 合併

중국 한어 어음변천에서 《廣韻》 ‘陌’ 韻 開口三等字와 ‘昔’ 韻 開口三等字가 南北朝시기에 합병되었다. 王力은 南北朝시기 ‘錫’ 韻 開口四等字를 ‘陌’·‘昔’ 두 韻 三等字와 等第만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독음인 [iek]으로 擬音하고 있다.¹⁷⁾ 이후 五代에 이르면 ‘職’ 韻 開口三等字까지 합병되지만, 入聲韻尾 [-k]는 여전히 존재한다.

‘錫’·‘陌’·‘昔’·‘職’ 네 韻 開口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극’·‘극’·‘극’·‘극’ 모음으로 반영되며 합병을 나타낸다. ‘錫’ 韻 일부 글자의 隋唐시기의 擬音인 [-ik]¹⁸⁾과 유사 음가인 ‘극’이 한국 한자음에 반영되고 있어 [-ik] 음 존재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현대 중국 廣州·陽江·夏門 등지 방언 중에서도 ‘錫’·‘陌’·‘昔’·‘職’ 네 韻 글자를 [-ik]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潮州 방언에서는 이 글자들이 [-ek]으로 반영되고 있어,¹⁹⁾ 한국의 ‘극’·‘극’과 유사한 음가를 나타낸다.

한국 한자음 반영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7) 같은 책, 506-506쪽.

18) 같은 책, 506쪽.

19)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70-75쪽.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昔	精	開口三等	-i	ㄱ	積春踏迹躡躡蹟積唐...	
	清				蹟刺...	
	從				籍踏精瘠唐...	
	心				昔腊惜渴楷...	
	邪		-ㄴ	ㄱ	席夕汐...	
	禪				石碩祐拓拓廳...	
	照				隻適炙跡...	
	穿				尺赤軋斥...	
	審		-i	ㄱ	釋釋爽蝥襖...	
	徹				彳	
	澄				擲躑...	
	影				益諡隘隘...	
	幫		-i	ㅋ	辟譬僻覽襪...	
	滂				僻癖癖...	
並	擲闕辟...					
喻	亦奔奕奕譯譯釋易場擇...					
職	照	開口三等	-ㄴ	ㄱ	職織職織...	
	神				食蝕	
	禪				寔湜殖植埴識式拭拭飾...	
	澄				直植...	
	知(일부)				植	
	徹			勅飭仗仗...		
	知(일부)			ㅋ	堊	
	精(일부)				陟	
	心				ㄱ	稷稷
	娘					息息瘳惹熄...
	喻	匿愜				
	幫	弋羽翌廣黠翼杙翊漢鈇...				
	滂	韶韶...				
	並	-i	ㅋ	埴躑穉...		
	來			踣		
	精(일부)			力勑劣勑...		
	從			劬		
	見			卽蝓鯽聖啣...		
	溪	ㄱ	ㄱ	聖		
	群			愜愜棘棘...		
影	輻					
疑	極					
	-ㄴ	ㄱ	憶億臆臆總臆臆抑...			
			嶷嶷嶷嶷...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錫	清	開口四等	-i	ㄱ	威慤鐵鐵鐵鐵...
	從				寂...
	心				錫析惕哲蜥積漸...
	端				的適嫡羸鈞鎬商...
	透				遜趨剔惕碧錫...
	定				荻狄敵翟翟迪笛...
	泥(일부)				怒
	見			激擊擊擊激發驚...	
	幫			壁緊...	
	滂			霹劈霹霹僻...	
	明			覓悞甯霧凜坻...	
	來			歷趣躑躅磔磔秣歷歷...	
	匣			檄覓發驚激...	
	曉			閱...	
疑	鷓鴣				
溪	喫				
泥(일부)	溺溺				
陌	見	開口三等		ㄱ	戟擻卮...
	群				劇屐...
	溪				隙郤...
	疑			裕	
	曉			逆繼...	
	並			鏡	
					樽

위의 도표에서 唇音 幫系 글자의 ‘ㄱ’모음 반영 현상은 매우 뚜렷하다. 그러나 몇몇 글자는 예외적인 반영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唇音字의 예외적인 반영 어음 현상에서 한국 고유의 한자음 반영특징을 엿볼 수 있다.

(1) ‘職’韻 並母 復

《廣韻》‘職’韻 並母 復은 같은 발음부위의 글자 및 同音字 ‘躡’이 ‘ㄱ’음으로 반영되는데 반해, 현대 한국어에서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중국어에서 ‘職’韻과 합병되는 ‘陌’韻과 일부 ‘昔’韻 글자의 先秦에서 東漢까지의 音值를 王力은 [-iak]으로 擬音하고 있어,²⁰⁾ ‘ㄱ’과 유사한 音價를 나타낸

다. 復의 ‘ㄱ’모음 반영은 중국 古音의 반영일 가능성이 보인다. 현대 한국 한자음 활용에는 표준어규정에 따라 ‘乖復’을 ‘괴팍’으로 고쳐서 발음하지만 復의 단독음은 여전히 ‘팍’으로 반영하여, 한국어 고유의 발음방법 용이성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職’韻 幫母 逼偏幅

《廣韻》‘職’韻 幫母 逼偏幅은 同音字가 한국 현대 한자음에서 ‘ㄱ’으로 발음되는 것과 달리 ‘ㅍ’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토 지유키는 ‘ㅍ’음을 ‘픽’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다.²¹⁾ 民衆書林 《漢韓大字典》에서도 逼과 幅의 本音을 ‘벽’으로 명기하고 있어,²²⁾ ‘職’韻 幫母의 반영규칙을 ‘ㄱ’으로 간주하고 있다. 元代 《中原音韻》에 逼은 《廣韻》‘緝’韻의 十什習及 등과 함께 ‘齊微’韻 〈入聲作平聲〉에 같이 나열되어 있다.²³⁾ ‘職’韻과 ‘緝’韻은 普通話에서 모두 [-i]음으로 반영된다. 王力은 宋代 ‘緝’韻을 [-ip]으로 擬音했으며,²⁴⁾ ‘緝’韻 글자의 한국 한자음은 ‘꺠’와 ‘꺡’이다. 종성 ‘ㄴ’과 한어의 어음변천사 합병을 고려할 때, 중국 元代 이전에 ‘職’韻 등과 ‘緝’韻이 합병되었던 현상이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한국어 고유의 발음 용이를 위해 ‘꺠’음으로 변환하여 발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支’·‘脂’·‘之’·‘微’韻 開口字 合併

중국 한어 어음변천과정에서 《廣韻》‘支’·‘脂’·‘之’ 세 韻 平上去의 開口三等字는 隋唐시기 이전에 이미 합류되었고, ‘微’韻 平上去 開口三等字

20) 王力, 앞의 책, 507쪽.

21) 이토 지유키저,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1, 337쪽.

22)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제3판, 民衆書林, 2009, 679쪽, 2308쪽.

23) 陳新雄, 앞의 책, 33쪽.

24) 王力, 앞의 책, 514쪽.

는 五代시기에 이르러 ‘支’·‘脂’·‘之’ 세 韻 開口字에 합류된다.²⁵⁾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 開口三等 글자는 기본적으로 ‘ㅣ’모음으로 발음되어 합병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齒音 글자는 洪音 ‘ㅏ’모음으로 반영되며, ‘支’·‘脂’·‘之’·‘微’ 네 韻의 喉音과 疑母字는 ‘ㄴ’모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齒音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 開口三等字 중 대부분 ‘精’系字와 일부 莊組字·‘支’韻 平聲 日母字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ㅣ’모음으로 반영된다. ‘精’系字는 조선시대 《東國正韻》·《華東正音通釋韻考》·《三韻聲彙》·《奎章全韻》 등의 책에서 ‘ㅣ’모음으로 표기하였고, ‘之’韻 莊組字는 《東國正韻》·《華東正音通釋韻考》·《三韻聲彙》·《奎章全韻》에서 ‘ㅣ’모음으로 표기하였으며, ‘支’韻 平聲 日母 兒는 《三韻聲彙》·《奎章全韻》에서 ‘ㅣ’모음으로 표기하여, 果攝과 假攝 開口 대부분 글자의 반영음인 ‘ㅏ’와 구별되었다.²⁶⁾ 예외적으로, 支韻 心母의 廡漸과 擘總偈, ‘旨’韻 邪母 兕羴, ‘寘’韻 從母의 漬 등 몇몇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어, ‘支’·‘脂’·‘之’·‘微’韻 開口字 합병 반영음 ‘ㅣ’와 같다. 그러나 그 중 ‘旨’韻 邪母 兕와 ‘寘’韻 從母의 漬는 조선 《東國正韻》·《三韻聲彙》·《奎章全韻》에서는 ‘ㅣ’모음으로 표기하였으나, 《華東正音通釋韻考》에서는 ‘ㅣ’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²⁷⁾ 이 글자가 조선시대에 ‘支’·‘脂’·‘之’·‘微’韻 開口字 합병음인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중기 한국어 ‘ㅣ’모음²⁸⁾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果攝과

25) 王力, 앞의 책, 503-505쪽.

26)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 285-296쪽.

27) 같은 책, 289쪽, 292쪽.

28) 김무림, 〈현대국어 한자음〉(《國語史와 漢字音》,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6) 183쪽에서는 ‘ㅣ’모음의 소실을 1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假攝 開口의 반영음인 ‘ㄱ’모음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 합
肥방언과 揚州방언에서도 日母의 일부인 兒而耳二 등의 글자가 [-a]운모
로 발음되고 있다.²⁹⁾ 또한合肥방언에서 果攝과 假攝의 開口字 巴打又阿
등의 글자가 日母 兒而耳二와 같은 [-a]음으로 발음되고, 揚州방언에서도
巴家把 등의 글자가 [-a]음으로 발음되고 있다.³⁰⁾ 齒音 글자의 [-a]음 발
음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국 방언 어음과 현대 한국 한자음의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
開口三等 글자의 합병음이 기본적으로 ‘ㅣ’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최남희의 止攝 齒音의 ‘ㅣ’모음이 상고음 기층에서 형성되었고, 일부
‘ㅣ’모음은 중고음 기층의 영향으로 본³¹⁾ 의견은 타당하다.

• 喉音과 疑母字

‘支·脂·之·微’ 네 韻의 또 다른 반영음 ‘ㄱ’음은 喉音의 대부분 글자
와 疑母字에서 나타난다.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의 喉音과 疑母
字는 普通話에서 다른 글자와 함께 [-i]운모로 발음된다. 그러나 현대 한
국 한자음에서는 喻母字만이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曉·爲·疑母字와 대부
분 影母字가 ‘ㄱ’모음과 결합하고 있다. 이토 지유키의 ‘5세기 말엽에서 16
세기 말엽 한국 한자음’ 분석에 의하면 중기 조선어에는 일부 喉音 뿐만
아니라 牙音에서도 ‘ㄱ’음의 발음이 나타났다고 한다.³²⁾ 牙音 글자들은 현
대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ㅣ’모음으로 바뀌었다. 어금닛소리 ‘ㄱ’ 뒤의
‘ㄱ’모음이 ‘ㅣ’모음으로 변하고 목구멍소리 ‘ㅎ’과 ‘ㅇ’ 뒤의 ‘ㄱ’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 유지되고 있어 한국인 발음의 용이성이 크게 영향을 끼쳤
음이 나타난다.

29)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71쪽.

30) 같은 책, 15-16쪽, 71쪽.

31) 최남희, <고대국어 한자음-고대국어 홀소리 「ㄹ(ʀ)」의 존재에 대하여>, 《國語
史와 漢字音》,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6.2, 22쪽.

32) 이토 지유키저, 앞의 책, 252-254쪽.

하나 주목할 것은 喉音 중 유일하게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喻母字와 다른 喉音의 차이이다. 喻母字는 ‘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말엽 조선’에서도 ‘ㅣ’모음으로 발음되었다.³³⁾ 저자는 한어의 영성모화 과정 중 喻母字가 가장 먼저 영성모화 되었다고 보며, 그 시기를 중고 36字母 이전으로 판단한다.³⁴⁾ 王力은 支·脂·之 세 韻이 [-i]운모로 변환한 시기를 隋唐시기로 보고 있다.³⁵⁾ 그렇다면 한국인이 이른 시기부터 접한 중국 喻母字는 이미 零聲母가 완성된 [-i]운모의 독음이었고, 이 독음이 그대로 한국 한자음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支·脂·之·微’ 네 韻字는 현대 중국 合肥지역에서는 일부 牙音 [ts]·[tsʰ] 뒤와 영성모 뒤에서 [-i]음으로 발음되며, 潮州지역에서는 影母 倚·喻母 移夷姨가[-i]음으로 반영되고 疑母 誼義議·影母 椅·喻母 已以 등의 글자가 영성모와 鼻音[ŋ]으로서 [-i]운모로 발음된다. 또한 厦門에서는 喻母 외에 [i]·[i] 두 음이 존재하는³⁶⁾ 등 [i]음과 유사한 音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ㅣ’로 발음되는 것 외에도 ‘소유격 조사’로 널리 쓰이는 ‘의’ 발음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발음이 용이하고, 자음의 제한이 없는 영성모에서 ‘의’ 발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음은 중국 고음의 영향을 받은 어음 표현으로 보인다. 王力은 止攝의 일부 글자에 대해서 東漢이전 어음에 韻尾[i]의 흔적을 擬音하였다.³⁷⁾ 그러므로 ‘ㅣ’에 대해서 韻尾를 소실하지 않은 시기의 흔적이라는 학자들의 의견³⁸⁾은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支’韻 喻母 訛와 ‘脂’韻 影母 伊咿蚩黹, 曉母 屎 등의 글자는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脂’韻 影母 伊咿黹와 曉母 屎는 조선 《東

33) 같은 책, 243-246쪽.

34) 출처, <명대(明代) 영성모화(零聲母化) 현상 연구>, 《中國語文學》, 嶺南中國語文學會, 2006. 6, 438-439쪽.

35) 王力, 앞의 책, 503-504쪽.

36)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84-99쪽.

37) 王力, 앞의 책, 502-504쪽.

38) 이토 지유키저, 앞의 책, 246쪽.

國正韻》·《華東正音通釋韻考》·《三韻聲彙》·《奎章全韻》에서 이미 ‘ㅣ’모음으로 표기되었다.³⁹⁾ 조선시대에 이 글자가 이미 ‘支’·‘脂’·‘之’·‘微’韻 開口字와의 합병 반영음인 ‘ㅣ’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質’·‘迄’·‘櫛’韻의 合併

王力の 고찰에 의하면 중국에서 《廣韻》 ‘迄’韻은 ‘質’·‘櫛’ 두 韻과 五代때 완전히 합병되어 이후 같은 어음변천과정을 거치게 된다.⁴⁰⁾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質’·‘迄’·‘櫛’ 세 韻은 入聲韻尾가 중성 ‘ㄴ’로 발음되고, ‘質’韻의 일부 글자들이 ‘迄’韻과 ‘櫛’韻의 주요 반영음 ‘ㄴ’로 발음되고 있어 세 韻의 합병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質’韻字에는 ‘ㄱ’음이 나타나고, ‘迄’韻字에는 ‘ㄴ’음이 더 나타나고 있다. 王力은 ‘質’韻의 隋唐 어음을 [-it]로 擬音하였고, ‘質’·‘迄’·‘櫛’ 세 韻의 五代어음을 [-iat]으로 擬音한다.⁴¹⁾ ‘ㄱ’의 元音 유사음 [-it]과 ‘ㄴ’의 元音 유사음 [-iat]을 고찰할 때, 五代 이전의 다양한 어음의 영향이 현대 한국 한자음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質’韻 來母字가 ‘術’韻 來母 合口三等 律絳膝葎 등의 반영음인 ‘ㄹ’로 읽혀지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王力은 五代 ‘術’韻字를 [-iuət]으로 擬音하고 隋代와 宋代의 音值를 [-iuit]으로 擬音하고 있어, ‘質’韻 五代의 [-iat]음 및 隋代와 宋代의 [-it]음과 開合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韻部로 간주하고 있다.⁴²⁾ 두 韻 來母字의 한국 한자음 반영음이 隋代에서 宋代 사이 ‘質’韻과 ‘術’韻의 어음 유사성의 근거가 된다. 오늘날 중국의 揚州방언에서도 ‘質’韻 栗과 ‘術’韻 律이 同音인 [lieʔ]으로 발음되고, 南昌과 梅縣방언에서는 [lit], 廣州방언에서는 [lɔt], 陽江방언에서는 同音[ɛt]으로 발음되고 있다.⁴³⁾

39) 楊人從, 앞의 논문, 290쪽.

40) 王力, 앞의 책, 511-512쪽.

41) 같은 책, 511-512쪽.

42) 같은 책, 511-512쪽.

《廣韻》 ‘質’·‘迄’ 두 韻 平上去의 변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質44)	照(일부)	開口三等	-ŋ	ㄴ	質啞柁櫨蛭鉗鎡鎖碩任...	
	神				實	
	審				失室...	
	初				剝...	
	穿				叱	
	知				窒挫座銓絳蛭...	
	徹				扶啞踈跌...	
	澄				秩秩秩扶跌姪...	
	日				日駟相銓...	
	照(일부)				ㄹ	鷲
	清				七柒...	
	從				疾嫉蒺蒺...	
	幫				必畢竊譚趕蹕蹕譚鶻蹕毳蹕蹕蹕...	
	滂				筆銳泌必...	
	並	匹鶻...				
	明	泌泌泌必必必必必必必必必必...				
	心(일부)	彌拂駮拂必必...				
	見	蜜謐必...				
	溪	密蓄沕...				
	群	悉蟋窻...				
	曉	吉赳結拈拈...				
娘	詰詰詰...					
影(일부)	姑估黠詰					
喻	故咭...					
精	胷					
心(일부)	曠呢紺愜...					
影	一壹					
來	逸佚佾溢軼鎡泆跌跌...					
迄	見	開口三等		ㄹ	聖御...	
	群				膝...	
	疑				乙鮀...	
				栗慄溲廳鷄溲築稜稜...		
				訖吃訖鮀...		
				迄		
				迄		
				迄吃迄吃...		

43)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84쪽, 132쪽.

	曉			ㄴ	迄乞鉷迄...
	溪				契
					乞芝

2. 宋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宋代에 나타난 어음변천 특징 중 현대 한국 한자음과 유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齊’·‘祭韻과 ‘支’·‘脂’·‘之’·‘微’ 네韻의 合併현상이다. 둘째, ‘緝韻字의 독립성 유지현상이다. 그 중 ‘緝韻字의 독립성 유지현상은 宋代 이전부터 나타났던 언어현상이지만, 宋代의 音價인 [-ip]의 유사음이 한국 한자음에 나타나고, 元代에 이르면 [-i]음으로 합병되므로 宋代 어음현상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일부 ‘齊’·‘祭韻과 ‘支’·‘脂’·‘之’·‘微’ 네韻의 合併

《廣韻》 ‘齊韻 平上去 開口四等字와 ‘祭韻 平上去 開口三等字는 隋唐 이전에 완전히 합병되었다가, 宋代에 이르면 ‘支’·‘脂’·‘之’·‘微’ 네韻 平上去 開口字에 합류된다.⁴⁴⁾ ‘齊’·‘祭’ 두韻의 글자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성모에 따라 ‘ㄱ’·‘ㅋ’·‘ㆁ’·‘ㄴ’모음으로 반영되어 합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글자는 五代 이후 ‘支’·‘脂’·‘之’·‘微’ 네韻 平上去 開口三等字의 합병 반영음인 ‘ㅣ’음이 ‘ㄴ’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幫系·泥母·日母자의 ‘ㅣ’모음 반영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廣韻》 ‘齊韻의 일부 幫系·泥母·日母 開口字가 ‘支’·‘脂’·‘之’·‘微’ 네韻 開口三等字의 반영모음인 ‘ㅣ’로 반영되고 있

44) 爲母 颯汨 등과 疏母 率帥蟀 등의 글자는 다른 판본의 反切에 따라 術韻 글자로 간주한다. 林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 151쪽.

45) 王力, 앞의 책, 512-514쪽.

다. ‘ㅣ’는 宋代 ‘支’·‘脂’·‘之’·‘微’·‘齊’·‘祭’ 여섯 韻의 합병음인 [-i]음과 유사하다. 일부 幫系·泥母·日母자의 한국 한자음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齊	幫	開口四等	-i	ㅣ	平: 裨裨裨裨裨...
	滂				平: 砲裨批批...
	並				去: 媿裨滂滂...
	明				平: 裨裨裨裨...
	泥				平: 迷靡...
	日				上: 米昧昧昧...
					去: 謎...
					平: 泥泥...
					上: 彌尼泥彌...
					去: 泥泥...
					平: 霽

(2) 일부 影母字와 疑母字의 ‘-ㅣ’모음 반영

《廣韻》 ‘齊’韻 去聲 影母 縊와 ‘祭’韻 疑母 剿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의’음으로 발음된다. ‘의’음은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의 曉·爲·疑母字와 대부분 影母字의 반영음으로, 縊와 剿의 반영음 ‘의’는 중국 한어에서 齊·祭 두 韻이 宋代 이후 ‘支’·‘脂’·‘之’·‘微’ 네 韻 平上去 글자와 합병한 현상과 일치한다.

2) ‘緝’韻字의 未合併

중국 한어에서 ‘緝’韻字는 宋代 이전까지 다른 韻과의 합병 없이 [-p]韻尾를 유지하며 독립성을 유지했다. 元代 《中原音韻》에서 《廣韻》 ‘緝’韻은 ‘齊微’韻 <入聲作平聲>에 나열되어 入聲韻尾가 사라졌음을 반영한다.⁴⁶⁾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緝’韻字의 운미는 중성 ‘ㅂ’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韻 글자들과 합병 없이 독립적으로 ‘ㅂ’·‘ㅃ’음으로 반영되고

46) 陳新雄, 앞의 책, 33쪽.

있다. 이 현상은 宋代 이전의 한어 어음현상과 일치한다. ‘ㅈ’음과 ‘ㅉ’음은 王力이 擬音한 五代 이전까지의 [-iəp]이나 宋代 [-ip]⁴⁷⁾음의 유사음으로 한어의 변천음 영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중국의 梅縣방언과 夏門방언의 文言文에서 ‘緝’韻字는 [-ip]운모로 발음되고, 廣州에서는 [-ɛp]·[-ap]운모로 발음되며, 陽江에서도 [-ɛp]·[-iɛp]으로 발음되고 있어⁴⁸⁾ 일부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p]韻尾가 보존된 유사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현대 한국 한자음의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緝	照(일부)	開口三等	-ɨ	ㅈ	執瓢慙...	
	禪				十什拾...	
	知				繫...	
	徹				滄雲漿	
	照(일부)				ㅉ	汁
	審					涇濕腥
	精			-i	ㅈ	渌渾昇執茸...
	清					緝茸諱昇...
	從					集輯職人鍊慙...
	來					立齧粒笠笠豈硯...
	邪					習隄颯櫛褶霽...
	影					揖挹
	心					霽...
	見					急汲給級級莢疲級皂...
	溪					泣囁滄...
	群					及鷓笈...
	曉					吸歛翁瀟闐...
莊		戢戢冊...				
影		邑悒吧裏浥飽...				
爲				熠...		

47) 王力, 앞의 책, 514쪽.

4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앞의 책, 83-95쪽.

3. 元代 漢語 어음현상과 한국 한자음 반영 특징

元代 한어 어음변천 현상 중 현대 한국 한자음과 유사한 현상 중의 하나가 《廣韻》 ‘齊’(平上去)·‘祭’·‘廢’ 세 韻 開口字의 合併현상이다. 중국 한어 어음변천과정에서 ‘齊韻 平上去와 ‘祭韻 글자는 隋唐 이전에 이미 완전히 합류하였다.⁴⁹⁾ ‘廢韻 疑母 ㄷ은元代 《中原音韻》에서 ‘齊微’ 韻에 속하며, 현대 중국 한어에서 [-i]음으로 발음되는 《廣韻》 ‘志’ 韻 開口三等 喻母 異와 影母 意, ‘祭韻 開口三等 喻母 齋勳曳와 疑母 藝, ‘真’ 韻 開口三等 疑母 義議誼와 喻母 易, ‘未’ 韻 開口三等 毅, ‘霽韻 開口四等 影母 翳贅와 疑母 詣, ‘至韻 開口三等 影母 齋懿와 疑母 劑와 같이 나열되어 있어,⁵⁰⁾ 元代에 ‘齊’(平上去)·‘祭’·‘廢’ 세 韻 開口字 뿐만 아니라 ‘支’·‘脂’·‘之’·‘微’ 韻과도 완전히 合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는 ‘齊韻 平上去·‘祭韻·‘廢韻 세 韻 開口字는 성모에 따라 ‘ㄷ’·‘ㄷ’·‘ㄷ’·‘ㄷ’모음으로 반영되어 합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廢韻 글자는 모두 ‘ㄷ’음으로 반영된다. ‘齊韻 平上去·‘祭韻·‘廢韻 세 韻 開口字는 《四聲等子》에서 蟹攝에 속하고 있어, 元代 이전에 이미 元音의 유사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王力 또한 元代 이전의 ‘齊’(平上去)·‘祭韻 글자를 舌面前次低元音의 [-iæi]로 擬音하고, ‘廢韻 開口三等 글자의 宋代音을 舌面央次低元音의[-iei]로 擬音하고 있다.⁵¹⁾ 한국 현대 한자음은 ‘齊 平上去·‘祭’·‘廢’ 세 韻 開口字의 合併을 나타내어 중국 元代의 어음현상과 유사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支’·‘脂’·‘之’·‘微’ 등의 舒聲과 구분되고 있어, 元代 이전 어음현상과 유사한 면도 보이고 있다. ‘齊 平上去·‘祭’·‘廢’ 세 韻 開口字의 한국 한자음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王力, 앞의 책, 503쪽, 513쪽.

50) 陳新雄, 앞의 책, 35쪽.

51) 王力, 앞의 책, 244쪽, 513쪽.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齊	精	開口四等	-i	平: 齋齋擠擠齋齋... 上: 濟齊齊... 去: 霽齊濟擠擠...
	清			平: 妻妻淒淒淒淒淒... 上: 泚... 去: 砌切...
	從			平: 齊齋齊... 上: 齊齋齊... 去: 齊齋齊齊齋齊...
	心			平: 西棲犀犀栖... 去: 栖...
	見			去: 細... 上: 洗
	溪			平: 雞鷄稽筭... 去: 計係繼繫筭繫繫...
	疑			平: 谿... 上: 啓察叶腎... 去: 契掣繫腎繫...
	匣			平: 倪颯寬兒颯兒颯兒颯兒... 上: 塊倪倪... 去: 詣羿倪塊寬...
	曉			平: 奚溪後蹊蹊後替兮颯... 上: 後談... 去: 莫系...
	影			平: 瞿瞿繫繫繫繫... 去: 瞿瞿瞿繫繫繫繫...
	幫(일부)			平: 狴... 去: 閉嬖算...
	並(일부)			上: 陛陛陛... 去: 薛...
	禪			平: 移... 去: 禪觀堤...
	端			平: 低氏抵抵抵紙... 上: 邸底詆抵抵紙紙... 去: 帝諦蒂滯滯...

《廣韻》		上古音 開合四等	현대 중국 표준음	현대 한국 한자음과 예				
206韻	41聲類							
齊	透		-i	ㄱ	平: 梯睇諦... 上: 體醍涕悌緹... 去: 替剃涕逖...			
	定			ㄱ	平: 噤蹇提提題題緹涕梯緹提緹... 上: 弟涕悌遞媿... 去: 第弟邈締睇涕悌鈇楛杖提題緹埽...			
	來			ㅋ	平: 黎犁黎黎麗... 上: 麗... 去: 麗仄麗麗麗麗麗麗麗麗麗...			
祭	精	開口三等	-i	ㄱ	祭際際際際... 懇搥搥搥... 傷... 瘡... 際搥蹠... 滯礙蹠... 制澗製折... 世勢貫... 掣裂... 伏莖...			
	溪				ㄷ	逝矧矧誓筭筭濼濼...		
	群					ㄱ	蔽... 激... 斃幣敝... 袂... 曳裔勸詆蹠濼... 竭瘞... 闕濶訕ㄱ... 藝藝... 例咏例例例... 礪勸禱瀉瀉瀉瀉瀉瀉...	
	知						ㅋ	去: 刈艾...
	徹							
	澄							
	照							
	審							
	穿							
	禪							
	幫							
	滂							
	並							
	明							
	喻							
影								
見								
疑								
來								
廢	疑	開口三等		ㄱ				

‘齊韻 定母 誑’은 같은 성모의 다른 글자들이 ‘ㄱ’모음으로 반영됨에도 ‘저’음으로 반영되고 있다. 聲符인 支韻 端母 氏의 영향으로 보여 진다.

Ⅲ. 나오는 글

한국에 한자가 유입된 이후 ‘한국 고유의 어음 영향’과 ‘한중교류’를 배경으로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현대 한국 한자음이 중국 漢語 어음변천의 영향과 함께 ‘고유 한국어 변천’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한자음을 중국 한어 어음변천과 비교한다면 현대 한국 한자음의 유래와 반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普通話 [-i]·[-ɿ]·[-ʌ]·[ə]의 주요 어원이 되는 《切韻指南》 止攝·蟹攝의 開口3等 및 開口4等 글자와 梗攝·曾攝·臻攝·深攝 入聲의 대부분 開口3等字와 開口4等字의 어음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파악하고, 다시 현대 한국 한자음과 비교를 통해 유사한 併合관계를 파악하였다. 중국 한어 변천내용과 현대 한국 한자음의 유사점으로 파악된 내용은 주로 五代 이전·宋代·元代 어음현상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7가지 현상에서 현대 한국 한자음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五代시기를 기준으로 살펴 본 어음현상은 《廣韻》 ‘陌’·‘昔’·‘錫’·‘職’ 네 韻 開口字의 合併, 《廣韻》 ‘支’·‘脂’·‘之’·‘微’ 韻 開口字의 合併, 《廣韻》 ‘質’·‘迄’·‘木節’ 韻의 合併이며, 宋代를 기준으로 살펴본 어음현상은 《廣韻》 ‘齊’·‘祭 韻字와 ‘支’·‘脂’·‘之’·‘微’ 네 韻의 合併, 《廣韻》 ‘緝’ 韻字의 未合併이다. 또한 元代를 기준으로 살펴본 어음현상은 ‘齊’(平上去)·‘祭’·‘廢’ 세 韻 開口字의 合併이다. 본고에서는 분석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 한자음에는 漢語의 특정 한 시대가 아닌 몇 시대에 걸친 併合관계 특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어의 7가지 현상과는 다른 어음현상을 보이는 글자의 발음을 한어 어음변천과 중국 방언을 근거로 원인과 어원을 파악한 결과 한어 고음의 반영, 한어 어음변천의 여러 시대적 특징의 공존, 발음의 편이성, 聲符의 영향 등 다양한 반영특징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職 韻 並母 復의 ‘ㄱ’모음 반영은 중국 古音의 반영이고, ‘職 韻 幫母 逼偏幅의 ‘ㅍ’음 반영

은 중국 한어 어음변천에서 元代 이전에 ‘職’韻 등과 ‘緝’韻이 합병된 현상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았다. 한어의 어음변천을 배경으로 한국어의 발음 편의성을 위해 ‘ㅊ’음으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支’·‘脂’·‘之’·‘微’ 네韻 대부분 ‘精’系字와 일부 莊組字 및 ‘支’韻 平聲 日母字의 발음인 ‘ㅈ’모음과 ‘質’韻 來母字가 ‘術’韻 來母 合口三等 律絳腭羣 등의 반영음 ‘ㄹ’로 입혀지고 있는 현상은 현대 중국 방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어음 互換 및 변천 범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References>

- Wang Li, *Han Yu Shi Gao*, 1st Edition, Beijing: Zhonghua book co. ltd, 1980.6.
- Yang Ren Cong, Study on Comparing with Sound of Sino-Korean and Mandarin, Konkuk university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issertation, 1982.
- Wang Li, *Han Yu Yu Yin Shi*,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1985.5.
- Kong Zhong Wen, *Yun Jing Yan jiu*, Taipei: Taiwan Student Book, 1987.10.
- Zhu Jia Ning, *Sheng Yun Xue*, Taipei: Wu-Nan book co., ltd, 1992.7.
- Yee Wen Publishing Company, *Deng Yun Wu Zhong*, Taipei, 1998.3.
- Lin Yin, *Xin jiao Song ben Guang yun*, Taipei: Li Ming Cultural Enterprise Co., Ltd, 1999.11.
- Zhou De Qing, *Zhong yuan yin yun*, Taipei: Yee Wen, 2001.4.
- Chen Xin Xiong, *Xin Bian Zhong Yuan Yin Yun Gai Yao*, Taipei: Xuehai chubanshe, 2001. 5.
- Chen Peng Nian, *Xin jiao Song ben Guang yun*, Taipei: Hongye

- Cultural Enterprise Co., Ltd, 2001.09.
-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Han Yu Fang Yin Zi Hui*, 2nd Edition, Beijing: Language & Culture Press, 2003.6.
- Choi, N. H., K. I. Jung, M. L. Kim, and I. H. Kwon, *History of Korean and Sound of Sino-Korean*, Seoul: pijbook, 2006.2.
- Lee Chun Young, "Research on the Zero-Initial Conversion phenomenon in Ming Dynast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 nam, 2006.6.
- Min Zhong books, *Han Han Da Zi Dian*, 3rd Edition, Seoul: Min Zhong books, 2009.1.
- Chiyuki Ito, *Sino-Korean Phonology*, Seoul: Geulnurim publishing co., 2011.

<Abstract >

This study tries to study three things. The first one is to trace similar relationship of present Sino-Korean sounds from transition process of KAI KOU 3 DENG(開口3等)·KAI KOU 4 DENG in Zhi Group(止攝)·Xie Group(蟹攝) and Abrupt Tone of Geng Group(梗攝)·Zeng Group(曾攝)·Zhen Group(臻攝)·Shen Group(深攝) of QIE YUN ZHI NAN(切韻指南) which pronounced as [-i]·[-ɿ]·[-ʌ]·[ə] in present Chinese Mandarin. Secondly, from the relationship, we try to examine any unique characteristic of Sino-Korean. Finally, we also try to find an origin of Sino-Korean sound by examining sound transitions and dialects of Chinese. As results of this study, we find that merger of letters of KAI KOU(開口) among 'MO(陌)'·'XI(昔)'·'XI(錫)' and 'ZHI(職)' in GUANG YUN(廣韻), that merger of letters of KAI KOU(開口)' among 'ZHI(支)'·

‘ZHI(脂)’·‘ZHI(之)’ and ‘WEI(微)’, that merger of letters of ‘ZHI(質)’·‘QI(迄)’ and ‘ZHI(木節)’ in a period of Five Dynasty(五代), that merger of letters of ‘QI(齊)’·‘JI(祭)’ and ‘ZHI(支)’·‘ZHI(脂)’·‘ZHI(之)’, that non-merger of letters of ‘JI(緝)’ in Song Dynasty(宋代), that merger of letters of KAI KOU(開口) among ‘QI(齊)’(Even Tone(平)·Rising Tone(上)·Falling Tone(去))·‘JI(祭)’ and ‘FEI(廢)’ in Yuan Dynasty(元代). This study analyzes the six sound phenomenon specifically, and find that the letters pronounced as [-i]·[-ɿ]·[-ʌ]·[ə] of Chinese Mandarin in Korean were affected from the sound transition of Chinese dynasties and any unique pronunciation system of Korean together.

Key Words : 한어 어음변화(Sound transition of Chinese Mandarin), 현대 한국 한자음(Sino-Korean sounds), 운모(Final of Syllable), [-i], [-ɿ], [-ʌ], [ə]